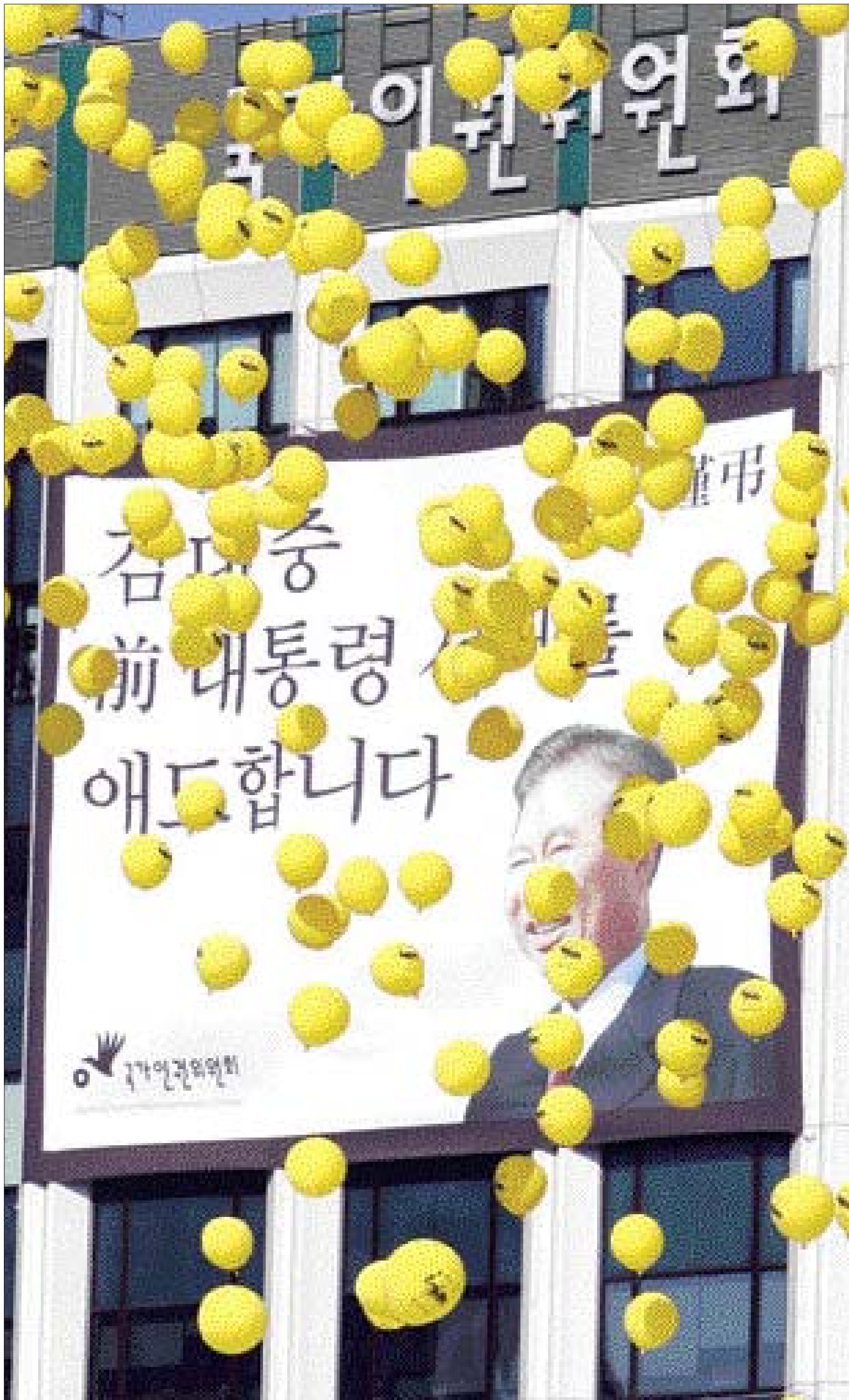


국민 가슴속에 잠든 민족의 큰 별



추모의 노란 풍선 하늘로 훨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가행된 23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노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 오르고 있다.



서울광장 추모 인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이 광화문네거리에서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.



도서관 둘러보는 영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서울 동교동 사저 옆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도착, 집무실을 돌고 있다.



유가족 입장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에 이희호 여사와 휠체어를 탄 장남 홍일씨 등 유가족들이 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.

사진=사진공동취재단·연합뉴스

국회 나서는 운구차량

▶국회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김 전 대통령 영정을 앞세운 운구차량이 국회 정문을 나서고 있다.



미망인과 이대통령 내외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이희호 여사가 한승수 총리의 조사를 들으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.



헌화하는 조문사절단 미국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(오른쪽)과 일본 고노 요헤이(오른쪽 두번째) 전 중의원 의장 등 각국 조문 사절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.